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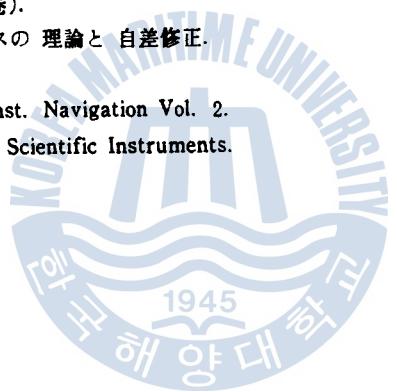
## 7. 結論

以上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傾船差를 Pitching과 Rolling의 境遇로 各各 分析한 理論에 依據한 自差修正의 原則에 따라 修正法을 完全히 改善한 것은 아니나 實用上 거의 問題가 되지 않으므로 本修正法으로 傾船差의 修正을 行하면 磁氣緯度가 變化하더라도 새로운 傾船差는 거의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本修正法의 裝置를 一般船舶에 設置함에는 여러가지의 未備點과 어려움이 있어 乘船實驗은 다음 機會로 미루는 바이다.

## 參考文獻

- 1) 李鍾洛 : 航海計器(第1卷).
- 2) 高木二郎 : 磁氣コンパスの 理論と 自差修正.
- 3) 航海科要説
- 4) T. H. O' Beireen: J. Inst. Navigation Vol. 2.
- 5) T. S. Arnold: Rev. of Scientific Instru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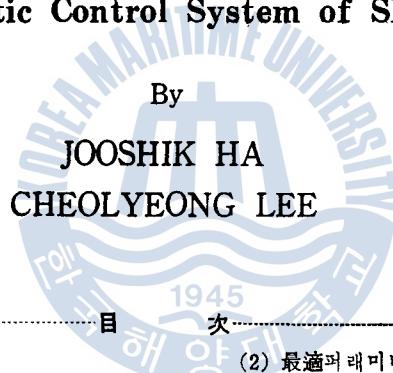


(1)

# 船舶의 自動操舵系統에 있어서 最適利得 및 最適微分時間決定에 關한 研究(I)

河 注 植  
李 哲 榮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the Optimal  
Gain and Differential Time in the  
Automatic Control System of Ships



## 目 次

- |                        |                                 |
|------------------------|---------------------------------|
| 1. 序 論                 | (2) 最適파라미터의 計算                  |
| 2. 船舶自動操舵系의 傳達函數와 定常特性 | 4. 最適파라미터의 數值計算例                |
| (1) 브록크線圖              | 5. 最適파라미터에 對한 檢討                |
| (2) 定常特性               | (1) 周波數應答의 共振值( $M_s$ 值)에 依한 檢討 |
| 3. 船舶自動操舵系의 最適調整       | (2) 아나로구 시뮬레이션에 依한 應答波形檢討       |
| (1) 評價函數의 選定           | 6. 結 論                          |
|                        | 參考文獻                            |

## Abstract

It has been considered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e automatic steering system is to keep the prescribed ship's heading as correctly as possible.

But, however correct the ship's heading is, in a practical engineering sense, it is meaningless if the energy required to control the ship's heading is too much.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purpose of automatic steering system is to keep the ship's course stable with the minimum ship's course error (deviation) and the minimum rudder angle.

In this paper, for the optimal determination of adjustable parameters (gain and differential time) of automatic steering system, the authors define a new type of the performance function which is composed of square integral of deviation and of rudder angle as following;

$$J = \int_0^\infty [\bar{\theta}^2(t) + \alpha \delta^2(t)] dt$$

Where  $\theta(t)$ : deviation.

$\delta(t)$ : rudder angle

$\alpha$ : a constant which shows the weight of above two values.

Then, optimal parameters minimizing the performance function are calculated by means of Parseval's theorem and numerical computations, and the obtained optimal values of the parameters are examined and confirmed by means of the frequency response method and analog simulations. As a result, it is found out that the method proposed by the author is very useful and effective.

## 1. 序論

船舶의 自動操舵機는 船舶의 針路를 自動的으로 다른 針路로 變針하게 하는 自動變針作用과 船舶의 針路를 指定된 針路로 恒常 自動的으로 維持하게 하는 自動保針作用의 두 가지 制御機能을 가지고 있다.

機能을 가지고 있다. 船舶이大洋을 航海할 때에는 끊임없이 風·波浪등의 外亂(disturbance)을 받게 되므로 自動操舵機의 機能은 大端히 重要하다. 即 自動操舵機의 設計 또는 퍼래미터調整이 完全하지 못할 境遇에는 이로 因한 船舶의 지그재그型 運轉으로 航路의 延長을 超來할 뿐만 아니라 操舵機의 不必要한 빈번한 作動으로 馬力의 損失을 가져오며 또한 不必要하게 操舵角을 增加시킴으로써 遠心力의 分力, 舵의 抵抗, 斜航으로 因한 船體의抵抗등을 增加시키게되어 結果적으로 馬力의 損失을 가져온다. 따라서 自動操舵機의 퍼래미터調整의 良否는 船舶의 運航經費에 直接的으로 큰 影響을 미친다.<sup>2) 6)</sup>

例로서 日本의 NITSEI MARU의 實船實驗結果에 依하면 上述의 要素中 斜航遠心力에 依한 抵抗이 가장 比重이 크며 이와 他抵抗을 合한 值가 5480kg, 그 때의 馬力損失이 375ps까지 이르는 增調도 있음이 나타나 있다.<sup>61)</sup>

는 境遇도 있음이 나타나 있다.<sup>6)</sup>  
 그러므로 自動操舵機를 最適狀態로 設計 또는 調整한다는 것은 船舶運航經費를 紓減한다는  
 見地에서 大端히 重要하다. 그러나 여기에 問題가 되는 것은 “最適”이라는 것에 對한 基準이  
 有する 位相여유(Phase margin), 利得여유(Gain margin), 周波數應答의 共振值( $M_s$ 值)등을 基準으로 하여 行해된다. 즉  
 一般的으로  $M_s$ 值가 어떤 범위(1.1~1.6)내에 들어오는 것이 좋은 狀態라는 막연한 基準에서 設  
 計해온 것이 普通이었다. 그러나 一般的인 프로세스制御系나 서어보機構의 調整에 있어서도 마  
 칸까지 이지막 이 基準은 그 理論的 根據가 희박하다.

찬가지 이지만 이 기준은 그 理論的 根據가 회박하다.  
 이에 答者는 最近의 시스템工學을 背景으로 하여 開發된 最適制御理論을 利用하여 自動操舵系  
 를 最適狀態로 設計 調整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最適의 基準이 되는 合理的인 評價函  
 數(Performance Index)를 選定하여 이 評價函數를 最小로 하는 意味에서의 最適設計 또는 調整  
 을 行하는 方法을 提案하고 이에 依해서 船舶의 自動操舵機의 設計者나 이를 運轉하는 一線實

務者들에게 有用한 指針을 提供하고자 한다.  
一般的으로 船舶自動操舵系를 最適設計 또는 最適調整하는 데는 크게 나누어서 다음의 세가  
지 方法을 들 수 있다.

(1) 閉回路制御를 前題로 하지 않고 適當한 評價基準을 最小로 하는 最適制御入力 を 取得せよ

舵角을 求하는 方法.

(2) 閉回路制御를 前題로 하여 適當한 評價基準을 最小로 하는 制御器 즉 最適自動操舵機를 設計하는 方法.

(3) 閉回路制御系에 制御器 즉 自動操舵機로서 現在 널리 作用되고 있는 PD制御器 또는 PID制御器등과 같은 制御器가 주어졌다고 하고 이의 最適퍼래미터를 決定하는 方法. 이 세가지 方法 중 (1)이 가장 넓은 意味의 最適設計이고 (2)가 그 다음, (3)이 가장 좁은 意味의 最適設計이다. 그러나 (1)의 方法은 專用디지탈計算機를 船舶에 塔載하지 않는 限 實現이 困難하며 비단 船舶에 限한 問題가 아니고 一般的인 프로세스制御系나 서어보機構등에서도 共通된 問題로 앞으로 보다 더 廣範圍하게 研究되어야 할 問題이다. 또한 現在 使用되고 있는 PD制御器보다 더욱 性能이 좋은 自動操舵機가 開發될 可能性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實用性 및 經濟的 인面을 考慮하거나 또는 船舶의 操舵角에서 施回角까지의 傳達函數가 1形이라는 点을 생각할 때 그 係數調整만 完全하다면 現段階로서는 現在의 PD制御器만으로도 自動操舵機로서 充分한 것으로 생각되는 까닭에 (2)의 方法은 큰 問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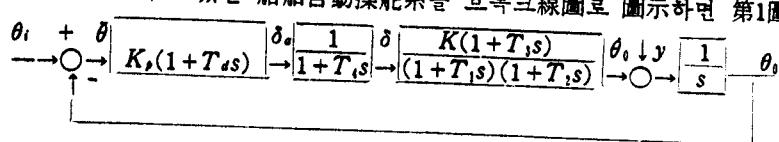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上述한 세가지 方法 중 (3)의 方法을 取하여 現在 船舶自動操舵機로서 一般의 實用化되고 있는 PD制御器의 最適퍼래미터를 決定하는 方法에 對해서 理論的 및 實驗的으로 考察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最適퍼래미터의 計算은 디지탈計算機로서 行하고 이 最適퍼래미터에 對해서 周波數應答의 共振值를 計算함으로써 從來의 方法과 比較檢討를 行하며 同時に 아나로그시뮬레이션에 依해 最適퍼래미터에 對한 自動操舵系의 應答波形을 分析하고 檢討함으로써 本方法의 妥當性과 實用性을 提示하기로 한다. 本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假定을 한다.

- 1) 自動操舵裝置에 있어서의 非線形要素의 영향은 無視한다.
- 2) 一定速度로 一定針路를 航行하는 船舶을 對象으로 하고 外亂에 의해서 생기는 偏角은 微小하다고 생각한다(10度以内)

## 2. 船舶自動操舵系의 傳達函數와 定常特性

### (1) 브록크線圖

現在 널리 使用되고 있는 船舶自動操舵系를 브록크線圖로 圖示하면 第1圖와 같다. 21 51 61 71



第1圖 船舶自動操舵系의 브록크線圖

第1圖에서  $\delta_c$ 와  $\delta$ 는 각각 命令舵角과 操舵角이며,  $1/(1+T_1s)$ 는 命令舵角에서 操舵角까지의 操舵機關의 傳達函數이고  $T_1$ 는 操舵機의 時定數이다.  $K_s(1+T_ss)/(1+T_1s)(1+T_2s)$ 는 船舶의 操舵角  $\delta$ 에서 施回角速度  $\theta_o$ 까지의 特性을 表示하는 傳達函數로서 여기서  $T_1$ ,  $T_2$ 는 船舶의 進路安定性을 表示하는 時定數이고,  $T_2$ 는 操舵角速度에 關한 時定數이며  $K_s$ 는 船舶의 操舵角과 施回角速度間의 定常利得이다.  $K_s(1+T_ss)$ 는 現在 普偏의 으로 使用되고 있는 自動操舵機(Auto pilot)

의 傳達函數로서 PD制御器의 役割을 하는 것이다. 이는 普通 微分 gyro 또는 trolley motor에 依해서 實現되는 것으로  $K_d$  및  $T_d$ 는 各各 自動操舵機의 比例感度 및 微分時間이다. 이  $K_d$ 와  $T_d$ 의 두 定數가 調整可能한 퍼래미터로써, 第1圖처럼 構成된 自動操舵系의 特性은 이 두 調整係數의 값에 의해서 決定된다.

第1圖에서  $\theta_0$ 는 命令針路로써 이것이 이 피이드백 制御系의 設定值이며  $\theta$ 는 船舶의 施回角인 實針路이고  $\theta$ 가 偏角 즉 針路誤差이다. 그리고  $y$ 는 外亂으로서 本研究에서는 船舶의 施回角速度에 해당하는 外亂이 外部의 風波浪等에 依해서 船舶에 作用된다고 한다.

## (2) 定常特性

一般的으로 自動制御系의 制御性의 良否를 評價하려면 定常應答과 過渡應答의 두 가지 特性에 對해서 檢討를 해야한다. 過渡特性에 對해서는 다음 節에서 論하기로 하고 本節에서는 우선 第1圖에 表示한 自動操舵系의 定常特性에 對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第1圖의 브록크線圖로 부터 偏角  $\theta(t)$ 의 라프拉斯變換  $\bar{\theta}(s)$ 는 1式과 같이 된다.

$$\bar{\theta}(s) = \frac{1}{1 + \frac{G(s)}{s}} \theta_0(s) + \frac{\frac{1}{s}}{1 + \frac{G(s)}{s}} Y(s) \quad (1)$$

$$\text{단, } G(s) = \frac{K_d K(1+T_d s)(1+T_i s)}{(1+T_i s)(1+T_d s)(1+T_o s)} \quad (2)$$

(1) 式으로 表示되는  $\bar{\theta}(s)$ 의 定常值에 對해서 調査하기 위하여  $\theta_0(s)$ ,  $Y(s)$ 로서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기로 한다.

(1)  $\theta_0(s) = \frac{1}{s}$ ,  $Y(s) = 1$  (目標值: 單位階段函數, 外亂: 單位 임펄스函數)  
이때의  $\theta(t)$ 를  $\bar{\theta}_1(t)$ ,  $\theta(s)$ 를  $\bar{\theta}_1(s)$ , 定常偏差를  $\epsilon_1$ 라 表示하면  $\epsilon_1$ 는 (3)式과 같이 計算된다.

$$\begin{aligned} \epsilon_1 &= \lim_{t \rightarrow \infty} \theta_1(t) = \lim_{s \rightarrow 0} s\bar{\theta}_1(s) \\ &= \lim_{s \rightarrow 0} \left( \left( \frac{1}{1 + \frac{G(s)}{s}} \frac{1}{s} + \frac{\frac{1}{s}}{1 + \frac{G(s)}{s}} \right) \right) \\ &= 0 \end{aligned} \quad (3)$$

(2)  $\theta_0(s) = \frac{1}{s^2}$ ,  $Y(s) = \frac{1}{s}$  (目標值: 단위속도函數, 外亂: 單位階段函數)

이때의  $\theta(t)$ 를  $\bar{\theta}_2(t)$ ,  $\theta(s)$ 를  $\bar{\theta}_2(s)$ , 定常偏差를  $\epsilon_2$ 라 하면

$$\begin{aligned} \epsilon_2 &= \lim_{t \rightarrow \infty} \theta_2(t) = \lim_{s \rightarrow 0} s\bar{\theta}_2(s) \\ &= \lim_{s \rightarrow 0} \left[ s \left( \frac{1}{1 + \frac{G(s)}{s}} - \frac{1}{s^2} + \frac{\frac{1}{s}}{1 + \frac{G(s)}{s}} - \frac{1}{s} \right) \right] \\ &= \frac{1}{G(0)} + \frac{1}{G'(0)} \end{aligned} \quad (4)$$

$$= \frac{2}{K_1 K_2}$$

(5)

와 같이 된다. (4)式의 第1項은 外亂에 依한 定常偏差인 바이 경우에 있어서 이 두偏差는 다 같고  $K_1 K_2$ 에 反比例한다. 따라서  $\varepsilon_1$ 를 적게 하려면 自動操舵機의 利得  $K_1$ 를 可能한限 크게 하는 것이 좋다.

實際 船舶이 自動操舵機에 依해서 一定針路로 航海 할 때 어떤 外亂에 依해서 偏角이 생겼을 경우 또는 一定角度만큼 變針하는 경우의 目標值  $\theta_1$ 의 變化는 (1)의 경우에 해당되고, 自動操舵機에 依해서 目標值을 一定速度로서 變化시키면서 航海하는 경우 즉 (2)의 경우는 거의 없다. 다음에 外亂  $y(t)$ 에 對해서 생각하면 船舶을 一定角速度로서 施回시키는 外亂이 連續的으로 作用되는 경우 즉 (2)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普通은 순간적으로 船舶에 施回角速度를 주는 外亂 즉 (1)의 경우가 많다. (3)式에서 알 수 있드시 (1)의 경우의 定常偏差는  $K_1$ 의 値에 關係 없이 恒常 0이다. (2)의 경우를 생각하면  $K_1$ 의 値는 可能한 크게 取하는 것이 定常偏差만을 考慮할 때는 有利하나  $K_1$ 를 크게 하면 自動操舵機의 感度가 커져 自動操舵系가 不安하게 되고 過度特性이 나빠질 可能性이 있다. 따라서 自動操舵機의 最適파라미터의 決定은 自動操舵系의 過渡特性 및 安定度等의 見地에서 行함이 合理的이라고 생각된다.

### 3. 船舶自動操舵系의 最適調整

#### (1) 評價函數의 選定

制御系의 過渡特性을 定量的으로 評價하는 데에는 周波數領域에서 行하는 方法과 時間領域에서 行하는 方法의 두가지가 있다. 이중后者는 前者에 比해서 훨씬 直觀的이라는 利点이 있다. 時間領域에서 過渡特性을 評價하는 方法은 特定한 入力에 對한 應答波形을 檢討하는 것으로 이 入力으로서는 階段狀入力(step input)을 使用하는 것이 普通이며 지금까지 많이 使用되어 온 方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1) 普通 取扱되는 自動制御系는 2次 以上의 高次系 이므로 주어진 高次系를 2次系로 近似시켜 그 2次系의 스텝응답(step response)의 減衰特性을 檢討하는 方法.

(2) 階段狀入力에 對한 誤差應答의 二乘積分 또는 制御面積絕對值積分의 大小로서 評價하는 方法.

(1)의 方法은 周波數領域에서 行하는 方法과 一對一로 對應하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널리 使用되어 온 方法이나 減衰特性을 評價하는 基準이 보호하다. 한편 (2)의 方法은 評價 基準은 뚜렷하나 制御系의 傳達函數가 有理式이 아닐 때는 그 計算이 複雜하다. 또한 이 두가지 方法은 所要의 過渡特性을 갖도록 하는 것만을 目標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過渡特性을 갖도록 制御하는데 所要되는 動力은 전혀 考慮를 하고 있지 않다. 船舶自動操舵系의 경우 外亂  $y(t)$ 가 임펄스狀 또는 目標值인 命令針路  $\theta_1$ 가 階段狀으로 變하였을 경우 偏角  $\theta$ 는 可及的 적은 것이 좋으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操舵機關을 너무나 빈번이 使用해야 한다면 綜合的으로 볼 때 오히려 動力의 損失을 招來하게 된다.<sup>21)</sup> 따라서 船舶自動操舵系의 過渡特性을 評價하는 때는 從來一般的으로 使用되어 온 評價函數, 即

$$J_1 = \int_0^{\infty} \theta^2(t) dt$$

(6)

(6) 式으로 表示되는 偏角의 2乗積分項 (ISE) 以外에 操舵機關의 作動에 消要되는 에너지 까지 를 考慮한 評價函數를 選定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그런데 操舵機關의 作動에 所要되는 動力 은 操舵角  $\delta(t)$ 의 2乗에 比例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操舵機關의 作動에 消要되는 에너지는 (7) 式으로 表示되는  $J_1$ 에 比例한다고 볼 수 있다.

$J_1 = \int_{-t}^0 \delta^1(t) dt$  (1)

그리므로 本研究에서는 (6)式과 (7)式을 組合하여 (8)式과 같은 評價函數를 定義하여  
價函數를 最小로 하는 自動操舵機의 最適 퍼래미터를 決定하기로 한다.

$$J = J_1 + \alpha J_2 \\ = \int_{-\infty}^{\infty} g_1(t) dt + \alpha \int_{-\infty}^{\infty} \delta^*(t) dt \quad (8)$$

여기서  $\alpha$ 는  $J_1$ 과  $J_2$ 의 加重度를 나타내는 係數(weighting coefficient)이다.

## (2) 最適판매량의 計算

(2) 最適피데미터의 計算  
 序論에서 言及한 것처럼 自動操舵機은 自動保針과 自動變針의 두가지 機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自動操舵系의 過渡特性을 評價하려면 이 두가지 경우에 對해서 別途로 行하여야 한다. 즉 自動保針의 경우는 命令針路  $\theta_i$ 를 0으로 하고 外亂  $y(t)$ 가 임펄스狀으로 加하여 之을 때의 過渡特性을 評價하고 自動變針의 경우는 外亂을 0으로 하고 命令針路가 階段狀으로 變하였을 때의 過渡特性을 評價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그러나 多幸히도 船舶의 自動操舵系는 第1圖의 브록線圖에서 알 수 있드시 어느 경우나 그 過渡特性은 같다. 즉 自動保針의 機能이 있으면 自動變針의 機能도 良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前者の 경우 ( $\theta_i = 0$ ,  $y(t) = \text{임펄스함수}$ )를 考慮한다.

(8)式을 計算하기 위하여 第1圖에서  $Y(s)$ 에서  $\theta(s)$  및  $A(s)$  ( $A(s) = L \delta(t)$ )까지의 傳達函數  
를 各各 求하면 (9)式 및 (10)式과 같이 된다.

$$\frac{\bar{G}_1(s)}{V_1(s)} = \frac{T(T,T,S) + (T,T-T,T+T,T)S + (T-T+T,T)S^{-1}}{T(T,T,S) + (T,T-T,T+T,T)S^2 + (T+T+T+TK,K,T)S + (1-TKK,-KK,T)S + KKK}$$

$$\frac{G(s)}{\sqrt{C}} \approx G_1(s) = \frac{T T, K, T, S + K, (T, T_1 + T, T_2 + T, T_3)S + K, T_1 + T_2 + T_3, S + K}{T T, T, S^2 + (T T_1 + T T_2 + T T_3)S + T^2 + T + T^2 + T, K K, T, S^2 + 1 + T, K K, + K K, T, S + K K}.$$

따라서 Parseval의 정리를 이용하면 (8)식은 (11)식과 같이 쓸 수 있다.

$$f = f_1 + \alpha f_2 = \frac{1}{\pi} \int_{-\infty}^{\infty} [G_1(j\omega)G_1(-j\omega) + \alpha G_2(j\omega)G_2(-j\omega)] d\omega \quad (11)$$

(9), (10) 式과 같이  $G_1(s)$ ,  $G_2(s)$ 가 有理式일 때 (11)式은 容易하게 計算되어  $J_1$ ,  $J_2$ 를 別途로  
計算해보면 각각 (12)式 및 (13)式과 같이 된다.

$$J_1 = \frac{1}{\pi} \int_{-\infty}^{\infty} [G_1(j\omega)G_1(-j\omega)]d\omega \\ = \frac{d_1^2(a_1a_2a_3 - a_1a_3^2) + a_1a_2a_3(d_1^2 - 2d_1d_2) + a_1a_2a_3(d_1^2 - 2d_1d_2) + a_1d_1^2(a_2a_3 - a_1a_2)}{2a_1a_2(a_2a_3a_1 - a_1a_3^2 - a_1a_2^2)} \quad (12)$$

$$J_1 = \frac{1}{\pi} \int_{-\infty}^{\infty} [G_2(j\omega)G_2(-j\omega)] d\omega$$

$$= \frac{c_1^2(a_1a_2a_3 - a_1a_3^2) + a_1a_2a_3(c_1^2 - 2c_1c_2) + a_1a_2a_3(c_1^2 - 2c_2c_3) + a_1c_1^2(a_2a_3 - a_1a_3^2)}{2a_1a_3(a_1a_2a_3 - a_1a_3^2 - a_2a_3^2)} \quad (13)$$

但  $a_1 = d_1 = T_1T_2T_3$ 

$a_2 = d_2 = (T_1T_2 + T_2T_3 + T_1T_3)$

$a_3 = (T_1 + T_2 + T_3, KK, T_d)$

$a_4 = (1 + T_1, KK, + KK, T_d)$

$a_5 = KK,$

$c_1 = T_1T_2K_1T_d$

$c_2 = K_1(T_1T_2 + T_1T_d + T_2T_d)$

$c_3 = K_1(T_1 + T_2 + T_d)$

$c_4 = K,$

$d_1 = T_1 + T_2 + T_3$

$d_4 = 1$

(12), (13)式을 (11)式에 대입하면 주어진 船舶에 對한 評價函數  $J$ 는  $K_n, T_d$  및  $\alpha$ 의函數가 된다.  $\alpha$ 는 船舶運航에 있어서 航路의 延長에서 오는 損失( $J_1$ )과 操舵機驅動에 要하는 馬力의 損失( $J_2$ )에 對한 比를 나타내는 係數이므로 이는 船舶의 運航經費에 있어서의 全般的인 得失을 考慮하여 決定해야 할 定數이나 여기서는 簡便上  $\alpha=1$ 로 하여  $J_1, J_2$ 를 같은 比率로 評價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11)式의 評價函數  $J$ 는 自動操舵機의 調整係數  $K_n, T_d$ 만의函數 즉  $J(K_n, T_d)$ 로 된다. 따라서  $K_n, T_d$ 의 最適值은  $J(K_n, T_d)$ 를  $K_n$ 와  $T_d$ 에 對하여 最小化함으로써 얻어지며 이 最適值은 (14)式을 만족한다.<sup>11)</sup>

$$\begin{aligned} \frac{\partial J(K_n, T_d)}{\partial K_n} &= \frac{\partial J(K_n, T_d)}{\partial T_d} = 0 \\ \left( \begin{array}{cc} \frac{\partial^2 J(K_n, T_d)}{\partial K_n^2} & \frac{\partial^2 J(K_n, T_d)}{\partial K_n \partial T_d} \\ \frac{\partial^2 J(K_n, T_d)}{\partial T_d \partial K_n} & \frac{\partial^2 J(K_n, T_d)}{\partial T_d^2} \end{array} \right) &: \text{positive definite} \end{aligned} \quad (14)$$

그러나 (14)式의 解를 理論的으로 求하는 것은一般的으로는 容易하지 않으며 求한다 하드라도 (11)式의  $J(K_n, T_d)$ 가  $K_n, T_d$ 에 對해서 単峰性(unimodal)이라는 條件이 없는限 그것이 實質한 最適值라는 保證은 없다. 왜냐하면 (14)式은 最適值에 對한 必要條件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J(K_n, T_d)$ 의 最小化는 數值解에 依할 수 밖에 없으며 이 數值解는 比較的簡単に 行할 수가 있다.

#### 4. 最適파라미터의 數值計算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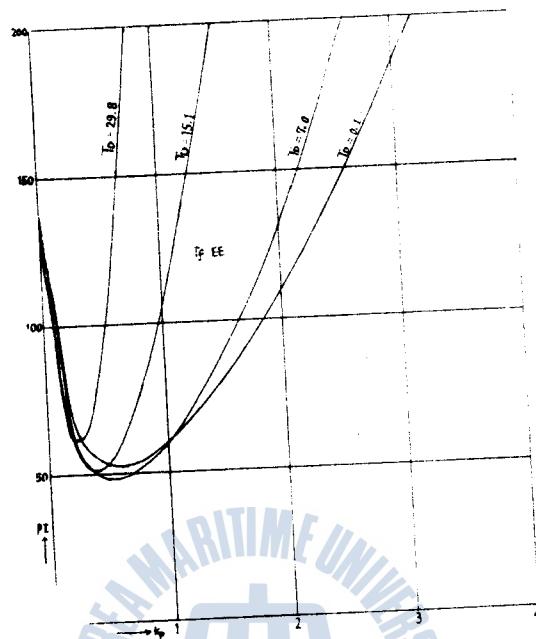
各種船舶의 代表의인 例로서 第1表<sup>11)</sup>와 같은 操縱性能指數를 가진 船舶에 對해서  $K_n, T_d$ 의 最適值를 計算해 보기로 한다.

		操縱性能指數			
船舶	積貨狀態	$T_1$	$T_2$	$T_3$	$K$
$T_f$	滿載油槽船	90	10	25	0.07
$C_f$	" 貨物船	45	6	10	0.08
$C_s$	空船 "	12	2	5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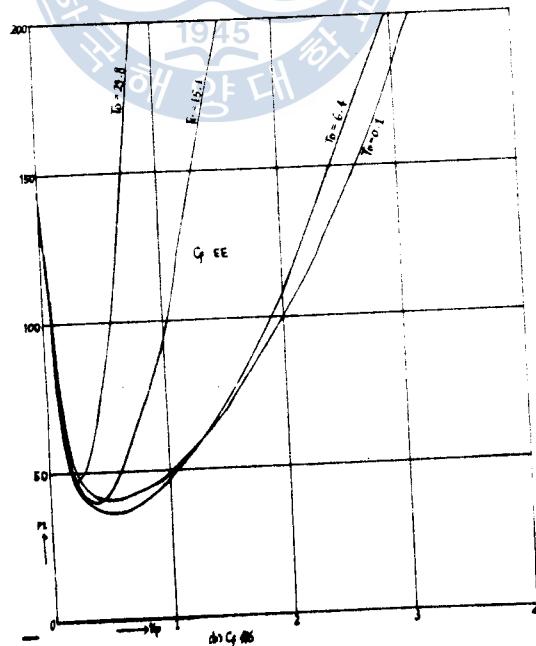
第1表 代表의인 船舶의 操縱性能指數

操舵機關의 時定數  $T_d$ 는 普通 1.6~2.0程度이나 最近의 船舶에는 應答이 빠른 操舵機關이 設備되어 있는 点을 考慮하여 여기서는 1.6으로 하기로 한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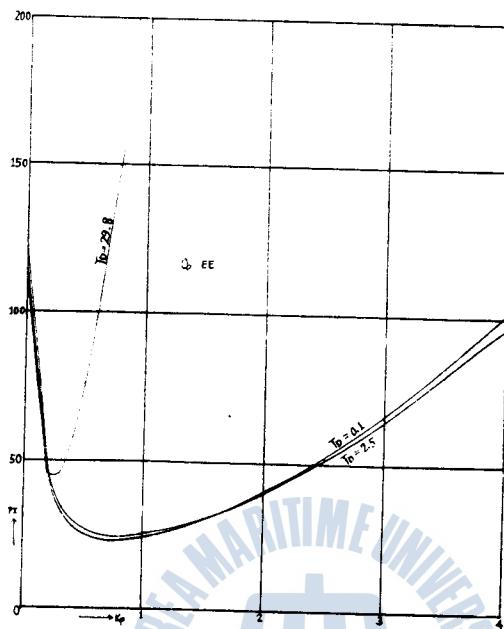
第1表의 船舶들을 例로하여  $K_n, T_d$ 의 여러 가지 값에 對해서 評價函數 (P.I)  $J(K_n, T_d)$ 의 값을 計算하여 이의 變化狀態를 圖示하면 第2圖 (a)~(c)와 같다.



(a)  $T_f$  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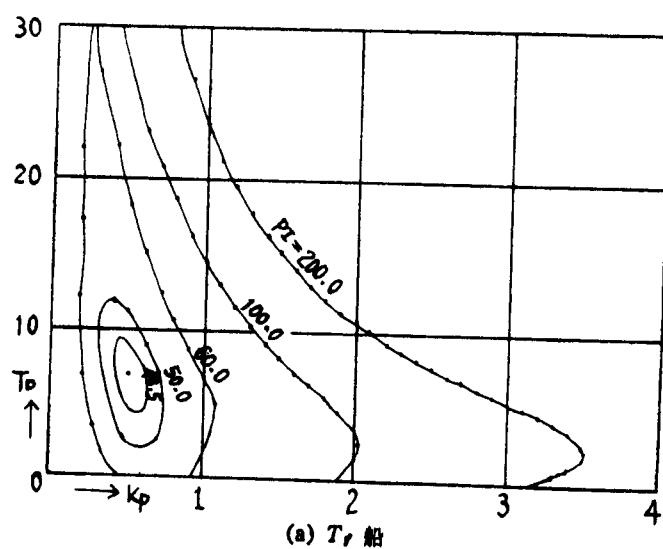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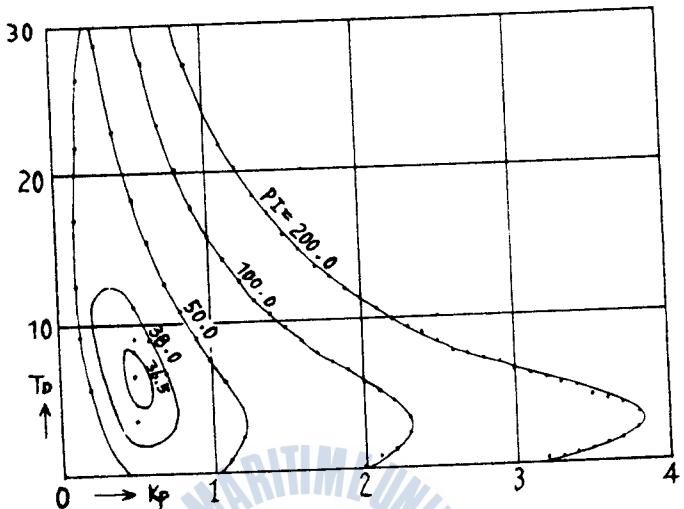
(b)  $C_f$  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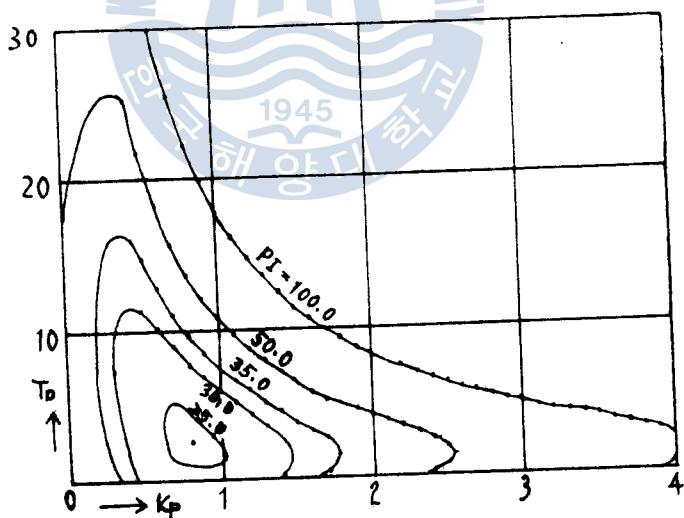
(c)  $C_1$  船  
第2圖 評價函數  $J(K_p, T_p)$ 의 값

다음에 이들 船舶들에 對한 評價函數의 等高線의 模樣을 檢討하기 위하여 等高線을 圖示하면  
第3圖 (a)~(c)와 같다.

(a)  $T_1$  船



(b)  $C_f$  船



(c)  $C_b$  船

第3圖 評價函數  $J(K_p, T_d)$ 의 等高線

第3圖에서 等高線의 模樣은若干 짜그리져 있는하나 評價函數  $J(K_p, T_d)$ 가  $K_p$ 值 및  $T_d$ 值의 實用範圍內에서 單峰性이므로 勾配法(gradient method)등의 極值探索法을 利用하여  $K_p$ ,  $T_d$ 의 最適値를 求할 수가 있다. 第2表는 例의 船舶들에 對하여 얻어진  $K_p$ ,  $T_d$ 의 最適値를 나타낸다.

操縦係數		$K_s$	$T_s$
船種			
$T_f$ 船		0.5	6.9
$C_f$ 船		0.5	6.4
$C_b$ 船		0.8	2.5

第2表  $K_1, T_1$ 의 最適值

는  $M_s$ 值로서 1.25程度가 좋다고 한다.勿論 이 1.25이라는 數字에 對한 確實한 理論的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2次系의 경우 이  $M_s$ 值와 系의 減衰率(damping factor)  $\zeta$ 와의 사이에는一定한 關係가 있어서  $M_s$ 值를 1.25 ( $\zeta=0.45$ ) 程度로 하는 것이 그 系의 임펄스應答(impulse response)이나 스텝應答의 減衰特性이 經驗上으로 보아서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M_s$ 值는 自動制御系의 過渡特性의 良否를 나타내는 定數가 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系의  $M_s$ 值를 計算함으로써 前節에서 計算한 最適미터에 對해서 檢討해 보기로 한다. 이  $M_s$ 值는 다음과 같이求할 수가 있다.

$T_{\text{船}}$ ,  $C_{\text{船}}$ ,  $C_{\text{船}}$ 에 있어서  $K_s$ ,  $T_s$ 의 最適值에 對하여 (15)式에 依해서 計算한  $M_s$ 值를 第 3表에 나타낸다.

船種	$M_s$
$T_s$ 船	1.243
$C_s$ 船	1.171
$C_b$ 船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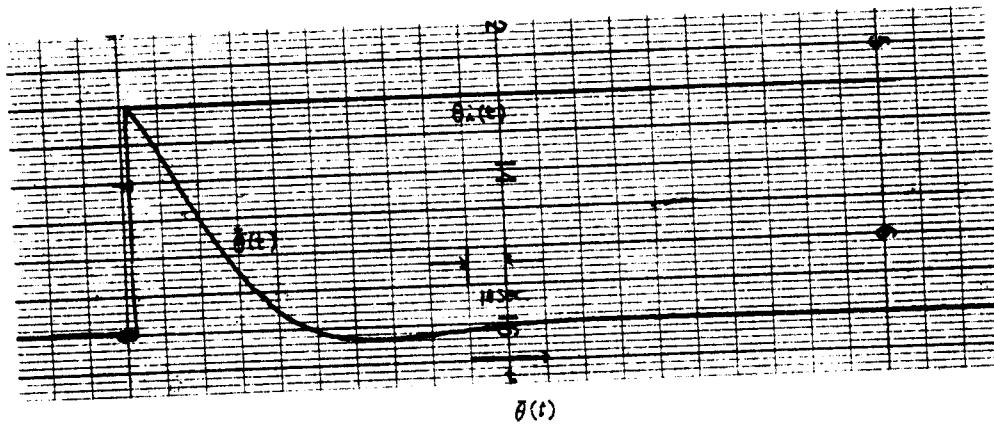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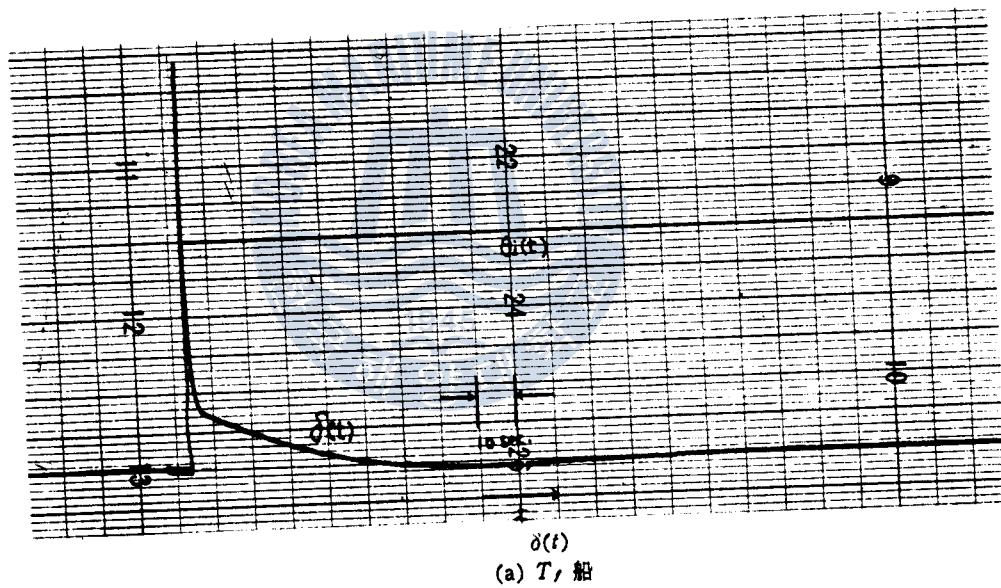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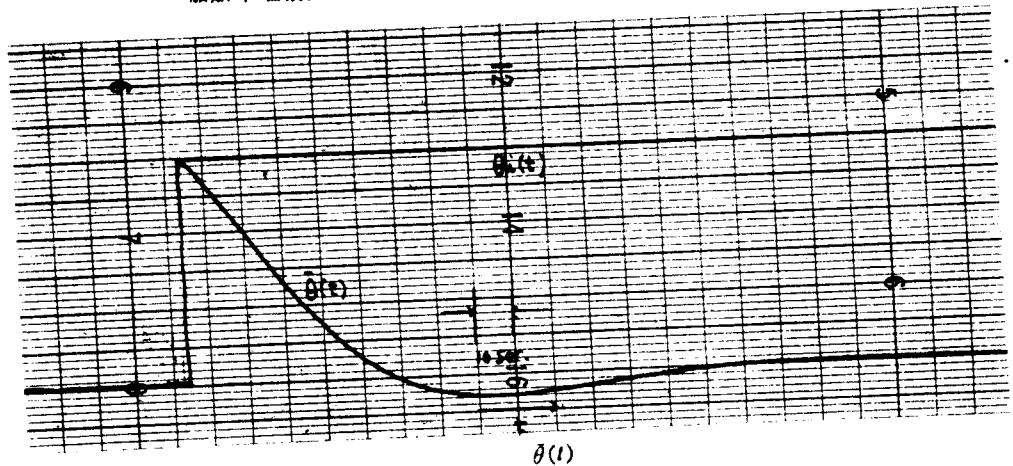
第3表 最適퍼센티에 對한  $M$ -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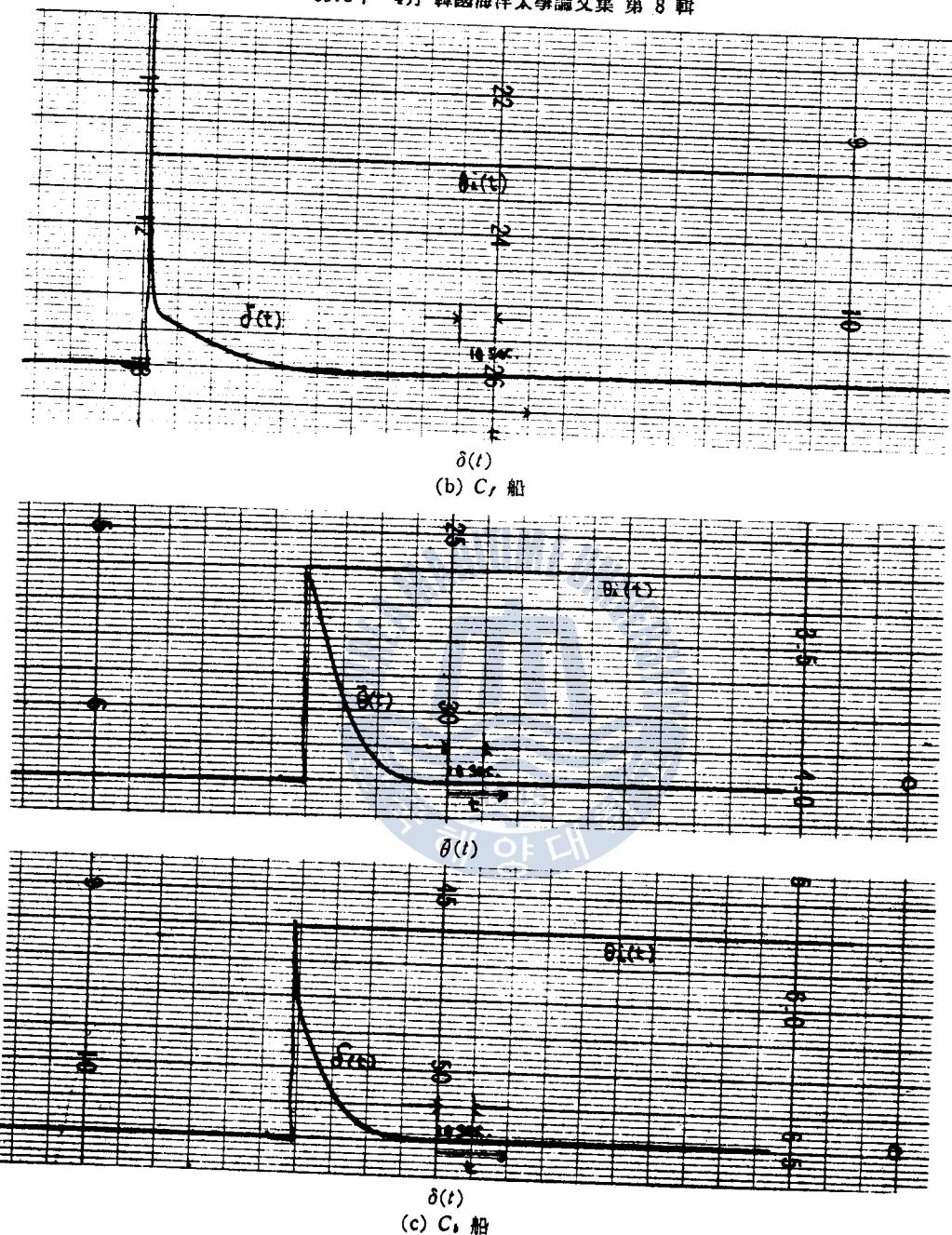
自動操舵系의 過渡特性 뿐만 아니라 操舵에 所要되는 動力까지를 考慮할 때  $M_s$  值는 船舶에 따라 差異는 있으나 大略 1.0~1.25 程度의 값이 좋다는 것을 第3表에서 알 수 있다.

즉 過渡應答의 減衰特性이 약간 나빠지드라도 操舵機關을 적게 使用하는 것이 綜合的으로 볼 때 有利하다는 것이다.

(2) 아나로구 시뮬레이션에 依한 電答波形 如下

4節에서 計算한  $K$ , 및  $T$ 의 最適值에 對한 應答은 實船實驗을 通하여 檢討함이 바람직한 일이나 이에는 여러가지의 大型船舶이 動員되어야 하며 莫大한 經費가 所要됨으로 本研究에서는 아나로구計算機를 利用한 시뮬레이션(simulation)으로 最適파라미터에 對한 應答波形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즉, 第1圖에 表示한 自動操舵系에 있어서 外亂  $y(t) = 0$ 이고 目標值 즉 命令針路角  $\theta_i$ 가 階段狀으로 變化할 때의 偏角  $\theta(t)$  및 操舵角  $\delta(t)$ 의 波形을 아나로구計算機로 解析한結果는 第4圖 (a)~(c)와 같다.



第4圖  $\theta(t)$  및  $\delta(t)$ 의 스크립트

第4圖에 나타난 波形들은 大體로 良好하며 이는 3節에서 提議한 評價函數가 合理的이며 本研究에서 提案한  $K$ , 및  $T$ ,의 最適值 決定方法이 有効함을 證明하고 있다.  $T_1$ 船,  $C_1$ 船에 있어서는 整定時間이 若干 긴 感이 있으나 이는 整定時間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動舵機關을 많이 使用해야 하므로 結果的으로 利益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6. 結 論

- 以上 本論文에서는 船舶自動操舵系에 있어서
- (1) 偏角의 2乗積分과 操舵角의 2乗積分을 同時に 考慮한 새로운 評價函數를 定義하여
  - (2) 이 評價函數를 最小로하는 意味에서 自動操舵機의 最適利得 ( $K_s$ ) 및 最適微分時間 ( $T_d$ ) 을 求하는 方法을 提案하고
  - (3) 數值計算 및 アナロ구시뮬레이션을 通하여 本方法의 有効性을 提示하였다.

### 그 結果로서

- (1) 従來의 周波數應答法에 의한 設計에 있어서 基準이 되는  $M_s$ 值는 1.25程度가 좋다고 되어 있으나 操舵機의 驅動에 所要되는 動力까지를 考慮한 結果  $M_s$ 值는 1.0~1.25程度가 좋고
- (2) 従來의  $M_s$ 值를 基準으로 하든 周波數應答法에 依하면  $K_s$ ,  $T_d$ 值가 一義的으로 決定되거나 本方法에 있어서는 一義的으로 決定될 뿐더러 그 理論的 根據가 明確하며
- (3) 古典的制御理論(周波數應答法等)과 現代制御理論(最適制御等)을 相互融合하여 使用하는 것이 實用性이 있는 좋은 結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 앞으로

- (1) 實船實驗의 施行
- (2) 本研究에 있어서 無視한 自動操舵系에 있어서의 非線形要素의 影響
- (3) 本研究에서는 考慮를 하지 않았는 操舵角의 微分值에 對한 制限(操舵角이 階段狀에 가까운 變化를 하는 것은 實際에 있어서 物理的으로는 困難함)
- (4) 各種船舶에 對한  $K_s$ ,  $T_d$ 의 最適值에 對한 表作成 등의 問題点에 對해서 더욱 研究되고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 参考文献

1. 元良誠三：“荒天中の 自動操舵 と Yawing について”，日本造船協会論文集 96號, pp. 61~68, 1954.
2. 小山健夫：“外洋航行中の 船の最適自動操舵系に關する研究”，日本造船協会論文集 112號, pp. 18~35, 1968.
3. J. H. Westcott：“The minimum Moment of Error Squared Criterion”; A New Performance Criterion for Servo Mechanisms, Proc. IEE, Vol. 101, pp. 471~480, 1954.
4. 増淵正美：最適制御入門，オーム社，1966.
5. 李哲榮：“船舶自動操舵系의 最適調整에 關하여”，韓國海洋大學論文集 第7輯, pp. 1~14, 1972.
6. 野本謙作：“自動操舵の 安定性に就いて”，日本造船協会論文集 第104號, pp. 53~61 1958.
7. L. J. RYDILL: “A Linear theory for the steered motion of ships in waves”, T. I. N. A., pp. 81~112, 1950.
8. I. SCHIFF and M. GIMPRICH: “Automatic steering of ships by proportional control”, Trans. S. N. A. M. E. pp. 94~124, 1949.
9. 宇野利雄：最大原理入門，共立全書, pp. 31~39, 1967.
10. 伊澤計介：自動制御入門, p. 128, オーム社, 1967.

# 詩의 存在性

李 廩勳

On the Reatity of Poetry

by

Lee Yong-Hoon

目次

- |              |                  |
|--------------|------------------|
| 1. 詩와 詩人     | 3. 詩<存在>와 感情의 節制 |
| 2. 詩<存在>와 形態 | 4. 表現精神          |

Abstract

This paper is based on a proposition that "poetry must be existent." Poetry is not intention or a message, but a being and an object. And it is not a physical being but an expressive one. Poetry arouses emotional experience in us because it is the expressive reality.

The main reason why poetry could come into being as an expressive being is that there exist the following two factors. One is the 'form' and the other 'the control over emotion.' What gives artistic beauty to a work of art is nothing else than form. Poetry exists on the basis of such form. That is, form is the residence where poetry exists and the base of a poetical work as concrete artistic form.

Secondly, the force which makes poetry come into being as the expressive form is the control over emotion. It is possible for a poet to maintain the objective distance from the object. and to observe coonly and describe the object. Because of the control over emotion, poetry arouses emotion and lets us experience the world of imagination. In order to compose poetry as an expressive being, a poet must make expressive spirit be the proper poetical spirit which a poet should possess. It is the expressive spirit that makes it possible for poetry to give a precise description, which is the important aim of poetry. To be short, poetry must be emotion and a language which are well controlled, and restrained. And poetry must be an objective object which lets us experience emotion, which is the meaning of poetry as an expressive being.